진실이 오른다 -밀레
MILLET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4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리더스아카데미 정치특강-이상돈 교수 ▶2
'염전 노예' 신안 천일염으로 불똥 ▶6
광주·전남 폐업 주유소 5년 연속 증가 ▶9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9676호 1판 2014년 2월 13일 목요일 (음력 1월 14일)

해냈다! 이상화…올림픽 2연패 '빙속 여제' 이상화가 제22회 소치 동계올림픽 대회 5일째인 11일 오후(현지시간) 러시아 소치 해안 클러스터 올림픽 파크 내 아들레르 아레나에서 열린 여자 5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뒤 플라워 세리머니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있다. ▶관련기사 14면 /연합뉴스

지방선거에 치여…올 5·18 행사도 못치를 판

지자체 선거법 위반 논란 예산지원 꺼려
광주·전남서도 외면 국가 기념행사 무색

올 해로 34주년을 맞는 5·18 기념행사가 6·4 지방선거에 가려지면서 철저히 외면받게 될 처지다. 광주·전남지역에서조차 국가 기념 행사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선거까지 겹쳐 선거법을 내세우며 예산 지원을 꺼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왜곡되고 부정하는 현실과 싸워 국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는 커녕, 준비 부실로 외면받는 '5·18 34주년'이 될 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다.

〈관련기사 6면〉

'5·18 민중항쟁 34주년 기념행사위원회'(이하 기념행사위)는 최근 열린 '5·18 34주년 기념 행사 준비 간담회'에서 6월 예정된 지방 선거를 빌미로 34주년 기념 행사 지원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대로라면 전 국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킬 만한 행사로 5월 정신의 전국화에 힘을 쏟는 것은 고사하고 부실한 '판박이' 행사가 불가피해 시민 외면을 받는 초라한 34주년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그대로 드러났다.

타 지역 뿐 아니라 전남지역조차 5·18을 자신과 상관없는 행사로 인식, 예산 지원 및 행사 참여에 관심을 갖지 않는 상황에서 올해는 광주에서도 지방 선거 때문에 '뒷전' 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이다.

기념행사위원회가 현재까지 확보한 예산은 4억8200만원. 지난해 4억4200만원보다 4000만원(10%) 가량 늘었지만 광주지방보훈청(1억2200만원)을 뺀 나머지(3억6000만원)는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등 광주에서만 지원한 게 전부다. 그나마 지방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을 우려, 자치단체 사이에서 선거 이후로 예산 지원을 미룰 것이라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전남지역에선 무관심하다 싶을 정도로 예산 지원에 인색하다. 전남도교육청은 2005년부터 5·18에 대한 예산 지원을 끊었다. 5·18을 기억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을 위한 5월 정신 교육이 절실한데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만 하다.

전남도는 한동안 공식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오다 수년 전부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행사비를 지원해왔으며 올해도 이 방식대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산 지원 여부로만 보면 5·18은 국가 기념일이 아닌, 전남에서조차 외면받는 광주만의 행사로 처리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지역이 5·18 기념 행사를 치를 리 만무하다.

기념행사위 관계자는 "부족한 예산 탓에 짜임새 있는 행사를 기획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특히 올해 행사는 6·4 지방선거 운동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점에 진행되면서 선거에 밀릴 가능성도 적지 않은 형편"이라고 우려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安신당 호남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으로 뽑는다

광주 윤장현·조영택·이상갑
전남 김효석·전윤철·장만채
전북 강봉균·한상진 등 거론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에서도 6·4지방선거 호남 3곳의 광역단체장 후보를 경선을 통해 뽑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안 의원 측 신당창당 준비조직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의 핵심 관계자는 11일 "원칙적으로 지방선거 시·도지사 후보 경선을 치를 생각이지만 전국에서 모두 실시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호남에서는 경선이 가능하도록 현재 단수 후보만이 거론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인물 영입을 추진하는 등 여러 인사들을 직·간접적으로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애초 호남지역 '안철수 신당' 광역단체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광주 윤장현 새정추 공동위원장, 전남 김효석 새정추 공동위원장과 이석형 전 함평군수, 전북 강봉균 전 의원 등이었다.

여기에 새정추에서 추가로 거론하는 인물은 ▲광주시장 후보로 이상갑 변호사와 조영택 전 국회의원 ▲전남지사 후보로 전윤철 전 감사원장과 장만채 전남교육감, 주철현 전 광주지검장, 이성웅 광양시장 ▲전북도지사 후보로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와 서거석 전북대 총장 등이 있다.

광주의 경우 우선 이 변호사는 지난 대선 때부터 안 의원을 도와온 인사로서 그동안 안 의원의 창당을 위해 호남지역 조직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조 전 의원도 주변 인사들에게 "공정한 경선이 보장된다면 신당의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할 뜻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남의 경우 재선이 유력한 장 교육감이 맨 먼저 거론되고 있으나 명분과 실리 모두 도지사후보 경선 참여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이미 신당 측 여수시장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주 전 지검장과 3선 연임을 끝으로 퇴임하는 무소속 이 시장 역시 도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나 현실화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북의 경우 전주고를 졸업한 임실 출신의 한 교수는 지난 대선 때 안 의원 캠프에 몸 담았으며 서 총장은 지난해 재·보궐 선거 가능성이 있었던 전주지역 후보로 논의됐던 인사여서 자천타천으로 후보 경선 참여가 거론되고 있다.

안 의원 측이 이처럼 호남에서 경선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경쟁자인 민주당이 경선을 통해 바람몰이를 하는데 '신당'에서는 경선을 하지 않을 경우 유권자의 관심에서 멀어져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기도 하다.

나아가 안 의원 측은 내부적으로 경선 등 공천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자는 차원에서 완전 국민참여경선과 여론조사와 배심원제를 조합한 경선제도 등의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안 의원 측 한 인사는 "국민참여경선의 경우 선거인단 동원 등으로 인한 돈 선거 지적이 있어 이를 대신할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오늘의 소치올림픽

13일(목)

19:00~21:30	쇼트트랙 ★	▲500m 결선 ♂ 심석희, 박승희, 김아랑 ▲1,000m 예선 신다운, 이한빈 ▲계주 5,000m 준결승 신다운, 이한빈, 박세영, 김윤재, 이호석
19:00	크로스컨트리 ♂	▲10km 개인출발 예선/결승 이채원
23:00~00:40	스피드 스케이팅 ♂ ★	▲1,000m 예선/결선 이상화, 김현영
23:00	바이애슬론 ♂	▲개인 20km 예선/결승 이인복
24:00	컬링	▲예선 (한국-러시아) 신미성, 김지선, 이슬비, 김은지, 엄민지
익일01:15~02:15	루지 ♂	▲팀 계주 예선/본선 김동현, 조정명, 박진홍, 성은령

연합뉴스 ▲남 ▲여 ♂ 메달 ★ 주요 경기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의원 내정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에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4선·마산)을 내정했다. 윤진숙 전 장관이 전격 해임된 지 불과 엿새 만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내정자는 국정 전반에 관한 이해의 폭이 넓고 실력과 덕망을 겸비한 중진 의원으로서 해수부 조직 안정에도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1996년 정계에 입문한 뒤 한나라당 원내부총무와 정책위부의장, 정책위의장을 거쳐 현재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박지경기자jkpark@

本社人事

▶申港樂:이사·주필
▶諸葛大鍾:광고마케팅국 부국장
▶朴治炅:서울취재본부 부본부장
▶金日煥:광고마케팅국 부국장직무대리(예향담당)

〈2월 13일자〉

학부 신입생 추가모집
원서접수
2014년 2월21일(화) ~24일(월)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062)605-1114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번지 / Tel. 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 200 1,991cc, 1,635kg, 자동7단, 복합연비 12.0km/ℓ(도심연비 10.5km/ℓ, 고속도로연비 14.6km/ℓ), 3등급, 복합CO_2 배출량 145g/km • E 220 CDI 2,143cc, 1,780kg, 자동7단, 복합연비 16.3km/ℓ(도심연비 14.2km/ℓ, 고속도로연비 19.8km/ℓ), 1등급, 복합CO_2 배출량 120g/km • E 250 CDI 4MATIC 2,143cc, 1,845kg, 자동7단, 복합연비 14.2km/ℓ(도심연비 12.8km/ℓ, 고속도로연비 16.4km/ℓ), 2등급, 복합CO_2 배출량 139g/km • E 300 3,498cc, 1,735kg, 자동7단, 복합연비 10.3km/ℓ(도심연비 8.9km/ℓ, 고속도로연비 12.7km/ℓ), 4등급, 복합CO_2 배출량 172g/km • E 300 4MATIC 3,498cc, 1,830kg, 자동7단, 복합연비 9km/ℓ(도심연비 7.9km/ℓ, 고속도로연비 10.9km/ℓ), 5등급, 복합CO_2 배출량 197g/km • E 350 4MATIC 3,498cc, 1,805kg, 자동7단, 복합연비 9.2km/ℓ(도심연비 8.2km/ℓ, 고속도로연비 11.1km/ℓ), 5등급, 복합CO_2 배출량 192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